

시·도의회 의장단선거 ‘당대당’? ‘합종연횡’?

광주시의회, 당론이나 ‘자리’나 ... 무기명 선거 변수로 전남도의회, 타당 후보와 러닝메이트 사실상 ‘합종연횡’

제20대 총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재편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당 대 당’ 구도로 갈지, 의원들 간 친분관계와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합종연횡’으로 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당을 떠나 ‘합종연횡’을 이루면서 선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후반기 의장단 부의장(2석) 선거는 다음달 8일, 상임위원장(5석) 선거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의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김영남 의원,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 등

이 거론되고 있다.

전반기 선거는 옛 새정치민주연합 일색 일 당시 현 조영표 의장(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12명이 세를 구축해 의회를 장악했지만, 이번에는 양당으로 갈라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과거 같으면 현 의장과 12명이 그대로 묻혀 하반기에도 주류가 될 수 있지만, 당이 갈리면서 그대로 갈지, 새판짜기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1당인 더민주의 국민의당에 의장을 내줄 수 없다며 대다수 의원들이 ‘당 대 당’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더민주

구성 과정에서 타당 후보 지원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이른바 야합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조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8명 중 4명이 더민주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거취가 최대 변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 대 당’ 구도가 된다면 제1당인 더민주가 내부적으로 조율해 힘을 합하면 국민의당은 단 한석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당 보다는 ‘자리’를 원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인데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에서 당론보다는 ‘자리’를 챙길 수 있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고민 속에 의석수에 따른 국회의원 배분 방식 원구성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다른 당 후보 지원

을 금지한 중앙당의 지침에도 더민주 이용재(광양 1) 의원이 국민의당 강성휘(목포 1) 부의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뤘다.

국민의당에서 의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임명규(보성 2) 의원도 상임위원장 후보에 더민주 의원들을 포진시키는 등 사실상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는 ‘합종연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는 현재 더민주 33명, 국민의당 22명, 무소속 2명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 당대당으로 가면 더민주가 승리할 수 있는 구조지만,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내야하는 의원들이 당보는 실익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론 위배를 가능하게 어려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도 의장단 선거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혜명 광주시 정무특보 사의 표명 윤시장 정무라인 재편 신호탄 되나

이혜명 광주시 정무특보보좌관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시장 측근 등 구설을 수습하는 등 정무특보로서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윤 시장 정무특보 정무라인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윤 시장이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은 만큼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무라인 재편을 통해 시장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특보는 최근 윤 시장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고, 윤 시장도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옛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당직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광주·전남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

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윤 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실인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력, 폭넓은 대인관계 등을 내세워 특보로 지난해 3월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이 특보는 최근 시장 현안해결, 윤 시장 측근의 시장 개입설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교체론이 제기됐다. 특히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의 관계설정 등 정무특보 본연의 역할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체설이 꾸준히 나왔다.

이 특보의 사의로 비서실장 등 다른 정무라인 인사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전남도, 불법어업 49건 적발

전남도가 5월 한 달 동안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일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49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봄철 어패류 산란 시기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벌인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 등 4개 단속팀이 참여했다. 단속팀은 전남지역 해상과 주요 위판장을 대상으로 입체적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어획강도가 높은 ‘기업형 삼갈이’ 대형기선저인망 경남선적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근해어선·운반선 3건,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을 이용해 낚지 등을 포획한 연안어선 13건, 외포란 꽃게 불법 포획 9건, 삼중자망·치어 포획 등을 적발했다.

최연수 전남남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은 바다 수산동식물의 주 산란 시기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업을 근해어선과 도계 침범 타 지역 어선을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연안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지난 2013년 291건에서 2014년 277건, 지난해 39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7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실적(167건)을 초과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단오 앞두고 ... 창포물에 머리감기
음력 5월 5일 단오(9일)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 세계 상위권

시도 공동 대기질 개선책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

광주·전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도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이 ‘광전 리더스 인포(Info)’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첫번째와 두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1143곳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전남은 843위, 광주는 868위에 그쳤다. 서울(909위), 경기(974위)보다는 위였지만 미국 LA(588위), 프랑스 파리(722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조 연구원은 미세먼지 관리기반 체계

화,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 활동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보하고 시·도의 미세먼지 예·경보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를 환경·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판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세계 500위권 진입을 목표로 두 지역이 공동으로 대기질 개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군·구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양육수당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셋째 아이가 만 0세인 경우 현재는 20만원을 매달 양육수당으로 받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많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창업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다음 달부터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의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대구 동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 데이’ 행사에 참석해 “7월부터 신

전남중기지원센터 동부출장소 7일 개소

전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남 전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시 현장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일 동부출장소를 개소한다.

순천 신대지구에 위치한 동부출장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노무사 등이 상주하면서 자금 지원, 국내외 마케팅, 인사·노무관리 등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 애로를 상담·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국립나주병원 우수 책임운영기관 평가 1위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재활, 지역사회 복귀를 연계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립나주병원이 올해 우수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립나주병원과 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소 등 10개 기관을 2016 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 책임운영기관 1위로 선정된 국립나주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연계치료 프로그램 외에도 고위험군 대상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 감소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목,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 / 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